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추석은 순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가위 덕담 가운데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계절에 맞이하는 우리 명절입니다. 그렇기에 한가위의 풍요로움이 언제나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가위만 같아라”고 덕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영원히 끊이지 않는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서두에 저자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전1:1)”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전도서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쓰인 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왕상 4:30)”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영원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꿈꿉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한가위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방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과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
0
2
4

추석 가정예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추석 되세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이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 도 말 은 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 가
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한 해 주님
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
에게는 형통에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의 삶과 학업,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 섬
기고, 사랑하는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
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말 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 같이

찬 송 찬송가 235장 다 같이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3.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중보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다 같이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